



## ‘소똥을 그릴 줄 아는’ 작가의 예술만화

《부자의 그림일기》  
펴낸 오세영씨

특징이다.

‘소똥을 그릴 줄 아는 작가’라는 수식어가 함축하고 있듯이 두엄내 풀풀 이는 토속적인 정서와 문학성, 여기에 고된 수련을 거친 잘 그린 그림들의 적절한 화면배치와 자유분방한 구성은 마치 한편의 완성도 높은 영화를 보는 듯한 재미와 감동을 전해준다.

만형에게 지게 작대기가 여섯 토막이 나도록 두들겨 맞고 무작정 상경, 만화가의 길을 걷는다. 어떻게 하면 만화를 잘 그릴까에 몰두해 있던 그는 ‘80년 광주’를 계기로 새롭게 태어났고 말한다. 친구로부터 전해들은 광주의 비극이 인간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에 눈뜨게 했고 그때부터 만화 속에 어떤 이야기를 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것.

“만화는 이 시대 가장 진화된 형태의 예술장르라고 생각합니다.”

문학, 영화, 회화가 지닐 수 있는 장점들만을 고루 갖춘 만화에 대한 그의 기대와 예상은 남다르다. 그리고 그런 그를 바라보는 만화계 안팎의 기대 또한 작지 않다. 그는 이제 곧 자신이 살았던 시골마을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화로 풀어낼 작정이다. —박남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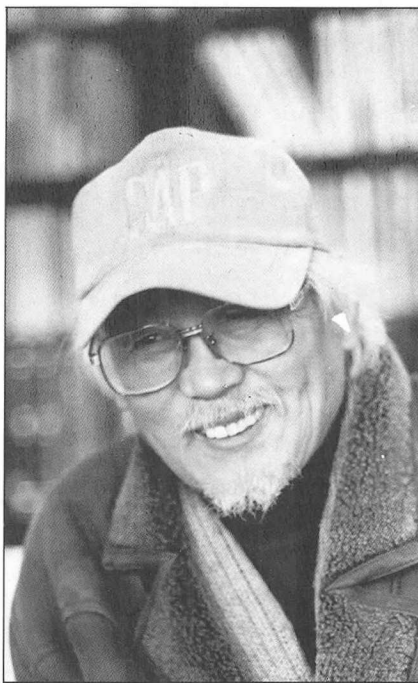
오세영(41)씨는 보통 사람들에게 그다지 낮이 익지 않은 만화가다. 그러나 그는 만화를 정말 좋아하고 제대로 된 만화를 열망하는 만화 매니아들에게는 일종의 ‘승배’의 대상이다. 도제식 수업을 통한 작가 배출구조나 대본소 중심의 유통구조, 그는 우리 만화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이 두가지 구조를 다 거부하고 오롯이 자기만의 독특한 만화 영역을 앞서 개척해온 작가이기 때문이다.

최근 펴낸 첫 작품집 《부자의 그림일기》(글그림발)는 그의 만화를 일반 독자들도 접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데서 반가움이 앞서는 책이다.

88년 올림픽 전후로부터 9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오세영씨가 그린 13개의 단편 만화를 수록하고,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가와의 대담과 만화가 한창완씨의 평론도 함께 실고 있는 이 책이 주는 느낌은 한마디로 만화가 예술일 수 있다는 새삼스러운 깨달음이다.

어린 소녀 ‘부자’의 그림일기를 통해 목격하게 되는 가난한 이웃의 문제, 이산가족의 아픔, 80년 광주가 한 인간의 삶에 끼친 비극적인 영향, 모두가 떠나버린 농촌마을의 스산한 정경 등 그의 작품들은 하나같이 우리 사회의 환부들을 들추어내거나 현대인들이 안고 있는 고독이나 소외 등의 문제를 깊이 천착하고 있다.

대부분의 만화들이 그려내고 있는 허황된 꿈이나 막연한 희망, 비현실적인 환상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그의 작품들은 현실을 직시하되 과잉된 주제의식의 노출이나 거친 구호로 흥미를 잃게 만들지는 않는 것이



## 20년 만에 돌아온 시인의 마음

《내마음의 솔밭》  
《한마리의 제비가 봄을 만든다》  
펴낸 황명걸 씨

는 한편의 비망록이다. 전문적인 산문가가 아닌 그가 30년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한편씩 써놓은 글들을 모았다. 이 책에는 신경림, 천상병 등 문우들과의 일화, 바둑과 술에 얽힌 이야기, 음악 미술 등에 대한 예술론들, 가족들의 이야기 등이 진솔하고 세련되게 그려져 있어, 고뇌를 넘어 인간의 가치를 깨달은 한 자유주의자의 인생역정을 읽어낼 수 있다.

그는 지금 경기도 양평 북한강가에서 화랑카페 ‘무너미’를 경영하고 있다. ‘물이 넘쳐 들어오는 마을’을 뜻하는 이 곳에서 그는 그림과 차와 젊은 예술가들과 어울려 산다. 요즘은, 그의 삶은 그림을 좋아했던, 그래서 그림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인지도 모를 일이다.

“글을 안 쓰면서 나이를 먹어간다는 사실이 그렇게 억울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쟁기도 오래 묵혀두면 말을 안 듣는 것처럼, 오랜만에 글을 쓰는 일도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를 마음 한구석에 애인처럼 지닌 시인으로 살면서 시를 쓰지 못한다는 사실이 큰 괴로움이었던 데 비하면 지금의 어려움은 차라리 행복에 가깝습니다.”

—허연 기자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까지 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돌려가면서 읽었던 책 중에 《한국의 아이》(창작과비평)라는 시집이 있었다. 그러나 그 시집의 시인은 첫 시집 이후 문단에 얼굴을 내밀지 않았고 그렇게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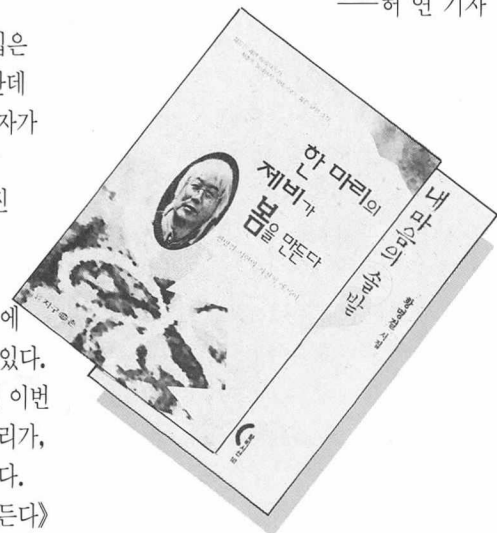
시인의 이름은 황명걸(60). 그가 20년만에 시집 《내마음의 솔밭》(창작과비평)과 수필집 《한마리의 제비가 봄을 만든다》(지구촌)를 동시에 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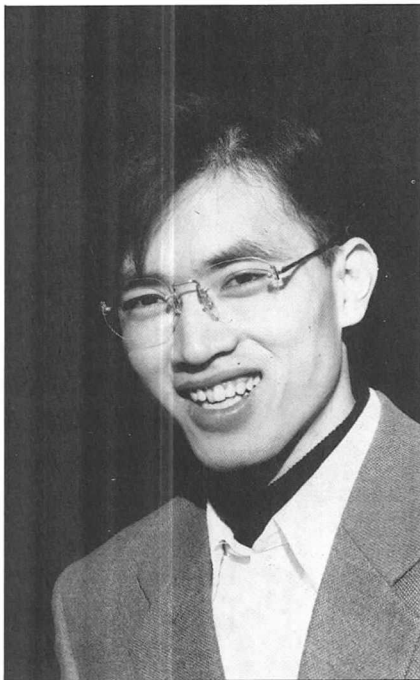
62년 등단한 뒤 동아일보 기자로 근무하던 74년 ‘자유언론실천선언’으로 해직되었던 그는 이른바 대기업에 입사해 ‘월급쟁이’ 생활을 하다 4년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후 다시 펜을 잡았고 오랜만에 행복을 느꼈다.

“나이를 먹으면서 문학은 인생을 관조하고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네 아주머니도 이웃집 아저씨도 구두수선장이라도 읽고 공감할 수 있는 삶과 자연을 바탕으로 한 글들을 쓰고 싶습니다”

그가 이순을 맞아 출간한 이번 시집은 오랜 시차를 두고 씌어진 작품들이 한데 모여 있다. 현실의 부조리에 대한 풍자가 주류를 이루는 초창기 작품에서부터 언론자유운동에 몸담은 시기에 씌어진 비판정신이 번뜩이는 시편들을 지나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에 쓴, 관조적이면서도 자연친화적인 작품들에 이르기까지 그의 연륜이 그대로 묻어 있다. 61편의 시들이 제작 연대 순으로 묶인 이번 시집에는 때로는 쟁쟁한 비판의 목소리가, 때로는 직관과 성숙의 깊이가 느껴진다.

수필집 《한마리의 제비가 봄을 만든다》





## 영화적 상상력으로 상징화된 삶의 무게

《바그다드 카페에는 커피가 없다》  
펴낸 김경욱씨

경박하지 않은 소설들을 꾸준히 발표해 왔다. 이번 창작집은 그의 이러한 문학세계를 총체적으로 보여준다.

《릴케를 위하여》에는 “거대한 절대적 이념이 붕괴된 이 바람부는 거리에서” 방향하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시네마 천국》에서는 “배고픔과 외로움만 빼면 그런대로 견딜만 했던” 과거를 타자의 발언을 통해 회상한다.

또 《이유없는 반항》에는 ‘농구’와 ‘소주방’ 문화에 젖은 신세대 청소년들을 등장시키고, 《지존무상》에는 대학 졸업여행에서 벌어지는 포커판을 의미심장하게 상징화시키고 있다.

그의 소설은 영상이미지를 많은 부분 패러디하지만 영상의 느낌과는 또 다른 ‘삶의 무게’가 있다. 그래서 그는 영화보다는 문학에 더 깊은 애정을 느낀다고 말한다. 역시 그의 가치관 속에서 상상력을 가장 예술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장치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영문과를 졸업하고 국문과 대학원에 진학한 그는 지금 ‘도시소설’을 하나 쓰고 있다.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사랑하고, 도시에서 상처받고, 도시에서 죽어가는 인간의 한 정형을 그려내고 있다.

—허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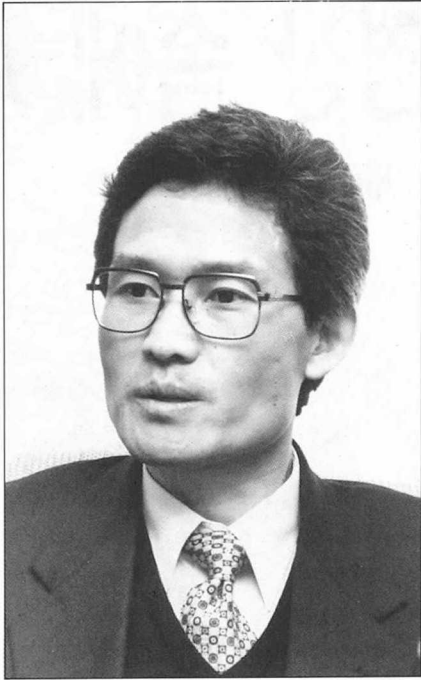
“80년대에 대학에 다닌 선배들이 암울한 사회현실을 원체혐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90년대에 대학에 다닌 우리는 그와는 다른 새로운 세상의 모습을 원체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젊은 작가들 중에서도 80년대 대학에 다닌 사람들은 ‘광주의 참극’으로 대변되는 동시대의 부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별로 없다. 우리가 흔히 신세대 작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세대인 90년대에 대학을 다닌 20대 중후반의 작가들이다. 그들은 엄숙주의보다는 경쾌하고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소설을 쓴다.

김경욱(25, 서울대국문과 석사과정)은 최근 소설문단의 대표적인 신세대 작가중의 한 사람이다. 장편 《아크로폴리스》(세계사) 이후 단편집으로는 첫번째인 창작집 《바그다드 카페에는 커피가 없다》(고려원)에는 《시네마천국》 《아웃사이드》 《지존무상》 《이유 없는 반항》 등 영상문화에서 전이받은 상상력을 바탕으로 쓴 단편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각 단편들의 내용이나 구성도 영화적 이미지로 채색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일상생활속에서 영화는 제게 폭발적인 가속도가 붙은 상상력을 촉발시켜주는 요소입니다. 선배 작가들이 일반적인 인간사에서 가치를 찾아해맸다면 저는 영화에 숨겨져 있는 인간과 사랑의 가치를 찾고자 했습니다.”

서울대 영문과 3학년 재학 중 《작가세계》 신인상에 중편 《아웃사이드》가 당선되어 문단에 등장한 그는 새로운 세대의 감수성을 여실히 드러내면서도 결코



## 정보통신 둘러싼 재계의 치열한 각축전

《정보통신 대전》  
펴낸 주호석씨

추진, 정보고속도로 구축 등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변모하고 있는 국내의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 관련분야의 변화속도가 빠른 것은 주호석씨가 책을 써내는 데 있어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워낙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까닭에 한두달 전에 써둔 원고는 옛날 이야기가 돼버려 쓸모없게 되곤 했습니다. 고쳐쓰거나 아예 새로 써야 하는 경우가 빈번했죠. 원고에 수정을 가하면서 버려진 원고만으로도 책 한권을 묶을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정보가 쏟아져 들어올 때마다 기존 원고를 고쳐써야 했다며 그간의 고충을 털어놓는 주호석씨. 자신의 저술이 정부·기업·일반인 모두에게 정보통신에 관한 균형잡힌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그는 올 연말쯤에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에 관해 풀어쓴 책을 펴낼 계획이다.

—한동림 기자

최대 유망사업 분야일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핵심 분야로서 정보통신 분야는 모든 국가와 기업의 조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국내 역시 정보통신 사업에 참여하려는 재계의 경쟁이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중이다. 그 격심한 각축전을 일간지 기자(매일경제신문 산업부)인 주호석씨(40)가 정보통신부 출입기자로서 활동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정보통신대전》(프레스빌)이라는 제목으로 정리해 펴냈다.

“전쟁이라는 단어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과연 많았던 선정과정과 기업들간의 격심했던 경쟁을 기록으로 남겨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1차 정보통신전쟁으로 기록된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과정의 전말을 정리하고 통신사업의 경쟁도입과정과 해당기업들의 경쟁모습을 지면에 옮겨놓은 주호석씨는 그 전쟁이 실상은 서막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정보통신을 둘러싸고 국가간·기업간에 벌어지는 경쟁은 비로소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에서 최소한의 모양새를 갖추고 있는 기업체들은 거의 예외없이 이 정보통신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개인휴대통신(PCS) 등 신규 정보통신서비스의 등장, 인공위성을 통한 첨단 정보통신서비스 시대의 압박, 이리듐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정보통신 서비스

